



새해 첫날 새벽 광주 밝힌 불꽃

기축년 새해를 맞아 열린 '광주시민 송·신년 축제'가 지난달 31일 밤부터 1일 새벽까지 광주시 동구 금남로에서 열렸다. 새해 시민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는 화려한 불꽃이 새해 첫날 새벽 광주 하늘을 수놓고 있다. /나영주기자 mjna@kwangju.co.kr

“희망과 도전으로 새해 열자”

무등산·향일암 등 수십만명 해맞이 인파

기축년(己丑年) 새해 첫날인 1일 광주·전남지역에서는 영하의 강추위와 강풍 속에도 수십 만명의 인파가 몰려 해맞이 행사를 즐겼다.

지역민들은 가족, 연인 등과 함께 광주 무등산과 금당산, 해남 땅끝마을, 여수 향일암, 완도 다도해 일출공원 등 해맞이 명소를 찾아 새해 첫 일출을 지켜보며 무자년 복을 벗고 환한 새해 소망을 빌었다.

광주의 해맞이 명소인 무등산에는 이날 3천여명의 시민들이 무등산 중머리재와 입석대·서석대 등에서 해맞이를 하며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빌었다. 특히 지난달 8개월여만에 공개된 입석대·서석대 등 정상절리대가 지난달 31일부터 24시간 공개되면서 인파가 몰렸다.

광주시 금당산 정상 갖대봉에서도 1천 500명의 시민들이 모인 가운데 '새해 해맞이 행사'가 열렸다. 영하의 추위 속에서

도 해맞이객들은 구형에서 나뉜 풍선에 '가족의 건강'을 기원하는 새해 소원을 담아 날려보냈다.

해남군 땅끝마을에서는 2만여 명이 모인 가운데 '제13회 땅끝 해맞이 축제'가 열렸다. 해남군에서 초청한 서울시청 직원 등 170명은 이날 거북선 형상을 띤 '올돌목 거북배'를 타고 완도군 군외면 흑일도 앞바다까지 나가 선상에서 떠오르는 해를 맞이했다. 참가자들은 또 새해 소망이 담긴 깃발을 작은 나무 배에 적어 보냈다.

남도의 해맞이 명소인 여수 향일암에서는 3만2천여 명의 관광객이 모인 가운데 '제 13회 새 빛·새 희망·천년의 해 오름' 축제가 열렸다. 참가자들은 새해 소망을 적은 '풍선 2009개'를 날려 보냈으며 '액막을 굿' 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가졌다.

목포와 제주를 왕복하는 1만7천여 명

객선 '퀵 메리호'는 2천800여명의 관광객들을 태우고 목포항에서 영암군 삼호읍 앞바다를 순항했다. 관광객들은 선상에서 목포시립교향악단의 연주를 들으며 일출을 감상했다.

하지만 이날 오전 광주·전남 대부분 지역이 흐린 가운데 눈이 내리면서 제대로 된 새해 일출은 보지 못했다. 한편, 지난달 31일 밤 광주시 동구 금남로에서는 광주시가 주관한 '2008 시민 송·신년 축제'가 수천명의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올해 광주·전남 일출시각은 ▲여수 오전 7시36분 ▲순천, 고흥 7시38분 ▲완도, 장흥 7시39분 ▲해남 7시40분 ▲광주 7시41분 ▲목포 7시42분 ▲무안 7시43분 ▲흑산도 7시45분이었다.

/나영주기자 ahj@kwangju.co.kr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오늘 날씨 ☀️ 해돋이 07시41분 🌙 해질 17시32분 🌧️ 달돋이 10시50분 달지름 22시55분

빙판길 운전 조심
대륙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으며 맑겠다.

광주	맑음	-6/5°C
목포	맑음	-3/5°C
여수	맑음	-2/7°C
완도	맑음	-2/6°C
구례	맑음	-7/6°C
해남	맑음	-4/6°C
장흥	맑음	-5/7°C
고흥	맑음	-3/8°C
순천	맑음	-3/7°C
영광	맑음	-7/4°C
진도	맑음	-2/6°C
전주	맑음	-8/4°C
남원	맑음	-9/5°C
흑산도	맑음	0/5°C

바다	풍향	파고	밀물	썰물
서해 남부 앞바다	북서~북	1.0~4.0m	목포 05:18	10:35
북서 앞바다	북서~북	1.5~4.0m	17:45	23:11
남해 서부 앞바다	북서~북	1.0~2.5m	여수 --:--	--:--
남해 서부 앞바다	북서~북	1.5~4.0m	--:--	--:--

◇주간날씨 기상내년전화: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짜	3(토)	4(일)	5(월)	6(화)	7(수)	8(목)
날씨	☀️	☁️	☀️	☀️	☀️	☀️
최저/최고	-3/6	-2/5	-2/4	-3/4	-3/4	-3/4

국립학교 43곳 공립화

2010년 이후로 미뤄

광주교대 부설초교 등 전국 43곳의 국립학교를 3월부터 공립학교로 전환하려던 정부의 계획이 2010년 이후로 미뤄졌다.

1일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이르면 3월부터 전국의 국립학교를 공립학교로 전환키로 하고 최근 국립학교 설치령 등 관련 법령 입법예고까지 마쳤으나 법령 개정 작업을 유보하고 공립화 계획을 내년 이후로 미루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과부가 공립학교 전환을 추진했던 광주·전남지역 국립학교는 광주교대와 목포교대 부설초교와 전남대 사범대 부설 중·고교 등 4군데였으며, 전국적으로는 서울교대 부속초교 등 모두 43개 국립초·중·고교이다. /정성필기자 camus@

“근면 성실한 소처럼 불황 이기자”

강진 백련사 템플스테이

“올해엔 소처럼 우직하고 근면 성실한 대한민국이 되길 바랍니다.” “가족 모두가 근심 걱정 없는 한해가 되게 해 주세요.”

기축년(己丑年) 첫날인 1일 오전 7시 강진 백련사에서 다산초당으로 가는 길목에 자리 잡은 '해월루'에는 300여명의 해맞이 인파가 몰려들었다. '바다 위에 뜨는 달'이라는 의미를 담은 '해월루'는 다산 정약용 선생과 백련사 해장선사의 만남의 장소였던 곳에 세워진 누각이다.

이날 '해월루'에 모인 해맞이 인파는 백련사에서 새해맞이 1박 2일 코스로 마련한 가족 템플스테이 참가자들로, 광주와 부산 등 전국 각지에서 모였다. 이들은 새해 소망을 담은 연 10개를 하

늘에 띄우고, 알록달록한 광목(廣木)에도 2009년 소원을 담아냈다.

강진 백련사에서 올해 처음으로 '화목한 가정을 기원'하는 의미를 담아 마련한 이번 가족 템플스테이에선 어른 덕담과 새해 타종, 소원쓰기, 산신제, 희망 연날리기, 캠프파이어, 새해 떡국 공양 등 알찬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특히 지난달 31일 밤 12시 정각부터 시작된 새해맞이 타종식에선 참가자 전원이 직접 범종을 치며, 지난 한해 복을 때를 흘릴 때와 올 한해 소망을 기원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초등학교생 아들·딸과 함께 이번 행사에 참여한 김지민(39·광주시 동구)씨는 “조용한 산사에서 가족과 함께 새해를 맞이할 만큼 올해엔 좋은 일만 가득할 것 같다”며 활짝 웃었다. /강진=박진표기자 lucky@

1일 새벽 0시0분32초 첫 아이 탄생

광주·전남 새해 1호

2009년 기축년(己丑年) 새해가 밝으면서 광주·전남에서도 올해 처음 이라는 수식어를 선물받은 '1호'가 잇따라 탄생했다.

첫 출산=새해 첫 아이는 광주시 북구 에덴병원에서 태어났다. 광주시는 1일 새벽 0시0분32초 태어난 황인길(32·김선화(30)씨 부부)의 첫 아이가 새해 첫 출생아라고 밝혔다. 황씨 부부는 “건강하게 잘 자라줬으면 좋겠다”고 소망을 빌었다.

첫 비행기=새해 처음 광주를 떠난 항공편은 이날 오전 7시50분에 광주발 김포행 아시아항공 OZ8700편. 광주공항에 처음으로 착륙한 항공편은 김포발 광주행 아시아항공 OZ8701편이었다.

첫 열차=이날 새벽 3시7분 목포역에 도착한 웅산발 무궁화 1411호 열차가 새해 첫 열차였다. 처음 출발한 열차는 이날 새벽 4시 광주역에서 웅산으로 향한 무궁화 1422호였다. 무궁화 1411호 김덕주(54)·전영민(37) 기관사는 “올해도 사고없는 한 해였으면 한다”고 말했다.

첫 출동=새해 처음으로 출동한 소방관은 1일 새벽 0시5분에 출동한 목포소방서 하당 119안전센터 김정현(40) 소방교, 정영아(여·40)·박훈희(27) 소방사, 김 소방교 등은 이날 옥암동에서 석현동 목포중앙병원으로 환자를 후송했다.

첫 출동 경찰관은 이날 새벽 0시0분에 출동한 광주북부경찰서 두암지구대 소속 조서중(53) 경위로 기록됐다. /안현주·김형호기자 ahj@kwangju.co.kr

'좋은 보청기를 쓰십시오'
난청이 사라지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국제보청기 본점 1동구동 118-16201 (062) 227-9940 / 총장점 금남로108 (062) 227-9970

(주)제주무궁화관광

1박2일 제주 여행 **89,000원**

제주도 여행 2박3일 169,000원 / 179,000원

제주도 여행 3박4일 219,000원

제주도 여행 4박5일 269,000원

제주도 여행 5박6일 319,000원

제주도 여행 6박7일 369,000원

빙/선/동 아이엘리시아

홍콩, 세피나, 각종 모임 및 행사 (이벤트) 개최 가능

동행기념품 제공

062) 671-1199